



지은이 토머스 L. 프리드먼 | 옮긴이 이영민, 최정임 | 출판사 21세기북스

위기에서 빛나는 스티브 잡스의 생존본능 원제 Inside Steve's Brain

우주에 흔적을 남기겠다는 열정을 가져다. 잡스는 직원들을 부드럽게 대하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잘 알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는 것이다. 이상한 일이지만 그의 파트너들 대다수는 적어도 그의 고품이 자신의 직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좋아한다. 그의 열정을 고맙게 여긴다는 얘기가. 그는 그들을 훌륭한 인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그 과정이 다소 힘들 수 있지만 그들은 많은 것을 배운다. 잡스의 비결은 '무언가에 대해 열정을 갖고 있다면 지긋지긋한 노으로 취급받아도 좋다는 신조에 있다.

본문 178쪽 중에서

12년 넘게 애플을 취재해온 저자가 기사 자료와 전·현직 애플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스티브 잡스와 애플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한다. 몰락의 길을 걸던 애플이 아이팟, 아이폰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며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기까지, 스티브 잡스는 어떤 방식으로 일했고 어떻게 위기들을 극복해냈는지 알려준다.

원벽주의와 강렬한 카리스마의 스티브 잡스. 통제에 집착하는 괴짜이고 최고의 인재만을 선호하는 엘리트주의자. 그는 벼랑 끝에 선 애플의 부도 위기를 멋지게 극복했고, 애플은 차별화된 제품으로 최고의 기업으로 다시 일어섰다.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기업 철학으로 승화시킨 스티브 잡스만의 일하는 방식을 소개한다. **HNA**

자료제공 | 교보문고